

##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기관 : 놀이터, 어린이 도서관, 청소년 기관

Local Community Center for Children :  
Playground, Children's Library, and Youth Center

현은자(Eunja Hyun)<sup>1)</sup>

고선주(Seonju Ko)<sup>2)</sup>

오연주(Yeonjoo Oh)<sup>3)</sup>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current status of playgrounds, children's libraries and youth centers as local community centers in support of children. Its data were collected from reviewing the relevant literature, interviews, surveys and web search. It was found that children's libraries were predominantly located in Seoul and Kyungki provinces. In comparison with other advanced countries, Korea had lower ratios of volumes of books and periodicals per the library user and of a number of staff per the user. It was also found that over a half number of playgrounds was placed in apartment areas. Since 1993, the long-term youth development plan has commenced the construction of various societal infrastructure such as local youth centers, counseling institutes, sex-culture centers and youth cultural zones. Based on these findings, some policy issues were raised.

**Key Words** : 놀이터(playground), 어린이 도서관(children's library), 청소년 기관(youth center).

### I. 현 황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내의 어린이 지원 기

관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있다.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도서관, 청소년 지원 기관들이 조사대상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지원기관 담당자와의

<sup>1)</sup>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과 교수

<sup>2)</sup> 숭의여자대학 유아교육과 조교수

<sup>3)</sup> 대림대학 유아교육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eonju Ko,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oong Eui Women's College, 8-3 Yejang-Dong, Chung-Gu, Seoul 100-751, Korea  
E-mail : koseonju@sewc.ac.kr

인터뷰, 기관 방문 조사, 관련 홈페이지 검색과 데이터 수집에 의한다. 각 기관의 현황을 살펴본 후, 연구 및 정책을 제안한다.

### 1.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은 만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가 설치된 곳”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법조 제2조 1항, 2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어린이 공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의 「어린이 공원」, 공동주택 단지내의 「어린이 놀이터」, 유

치원의 「유원장」, 어린이집의 「유아놀이터」는 유사한 공간적 기능을 하므로 총칭하여 「어린이 놀이터」라 한다.

어린이 놀이터는 <표 1>에서와 같이 놀이터의 종류에 따라 설치 주체가 다르고 이에 따른 명칭, 설치기준, 관리주체 및 관련 법규도 상이하다. 또한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표 2>와 같이 설치 주체에 따라 매우 상이하며, 각각 규모, 세대수, 어린이 수를 기준으로 놀이터의 면적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놀이터 구성기준, 안전 기준 등이 명문화 되어있지 않다(단, 최근 어린이집 유아놀이터는 놀이기구의 구체적인 설치에 기준이 제시됨).

놀이터의 정확한 통계는 발표된 바 없으며 추정 통계로 2007년 말 기준 62,350여개이며, 이 중 아파트 놀이터가 33,201개로 가장 많고, 학교와 유

<표 1> 전국 어린이 놀이터 현황

구 분	어린이공원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유원장	유아놀이터
위치	주택가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어린이집
현황 (개)	1,207	28,897**	8,344***	17,559****
법적 지위	도시기반시설 (공원)	건축 부대시설 (복리시설)	체육시설	보육부대시설
설치 기준	유치거리 : 250m 이하 면적 : 1,500m <sup>2</sup> 이상	50세대 이상 주택단지	유치원	50인 이상 보육시설
설치·관리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시공사 (아파트관리사무소)	유치원	어린이집
관계 법령	도시계획법	주택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담당부서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 2008년 서울시 어린이 놀이터

\*\* 2008년 아파트주거환경통계, 국토해양부, 대한주택공사, 2008.10

\*\*\* 전국 유치원 수(2008 교육통계)

\*\*\*\* 전국 국공립, 법인, 민간보육시설 수 합(부모협동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제외) (2008 보육통계)

<표 2> 설치 구분에 따른 주요설치기준

구분	주요 설치기준
어린이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거리가 250m 이하, 면적이 1,500m<sup>2</sup> 이상</li> <li>• 어린이 전용시설 설치</li> </ul>
어린이놀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 편리, 일조 양호, 배수 양호한 곳</li> <li>• 100세대 미만 : 세대수×3m<sup>2</sup>(시·군지역은 세대수×2m<sup>2</sup>)</li> <li>• 100세대 이상 : 300m<sup>2</sup>+(세대수-100)×1m<sup>2</sup>(시·군지역은 200m<sup>2</sup>+(세대수-100)×0.7m<sup>2</sup>)</li> <li>• 주변 환경과의 이격 거리 규정 준수</li> <li>• 폭은 9m(면적이 150m<sup>2</sup> 미만인 경우에는 6m) 이상</li> </ul>
유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아 40명 이하 : 160m<sup>2</sup></li> <li>• 원아 40명 이상 : 120m<sup>2</sup>+(학생수-40)×1m<sup>2</sup></li> <li>• 인접한 공동사용 놀이터 대체 가능</li> </ul>
유아 놀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50인 이상 설치 의무</li> <li>• 면적 : (영유아 수)×2.5m<sup>2</sup> (단, 12개월 미만 영아 제외)</li> <li>•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페타이어 블록도 가능)에 대근육 활동시설 등 놀이시설 물 3종 이상 옥외 설치</li> <li>•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내놀이터 설치 또는 인근놀이터를 가능</li> </ul>

치원 놀이터가 10,184개 등이 있다. 나머지는 어린이 공원 및 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 공원과 유아놀이터이다. 아파트 놀이터의 경우 서울이 5,018개로 가장 많다. 유치원의 경우 2004년 기준 8,246개 유치원의 약 58%정도가 단독 실외놀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놀이터의 관리와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은 <표 1>에서와 같이 지자체, 아파트 관리소,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각각의 법령에 의해 관리되어 왔으나, 법령마다 설치기준과 안전관리 내용이 상이할 뿐 아니라 대부분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체계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상태였다. 다행히 2007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공포되었고, 관련 행정 업무도 행정안전부로 일원화되었다. 이 법에서는 기본 놀이시설 10가지를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이 놀이기구 제조·수입업자의 안전검사와 안전인증획득을 의무화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 설치자는 관리주체

에게 인도하기 전 설치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놀이터 관리주체는 월 1회의 자체적 안전 점검, 2년에 1회 이상의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하며, 안전교육, 보험 가입과 중대사고의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하였다(산업자원부, 2008).

최근 들어 자녀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부모들이 다양한 놀이기구를 원하게 되었고, 놀이기구의 안전성, 모래오염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터가 등장하고 있다. 그 중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상어린이 공원 : 2007년부터 서울에서 추진 중인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단조롭고 노후화되어 그 동안 외면 받아오던 기존 어린이 공원을 어린이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꿈과 창의력·상상력을 키워주는 테마놀이공원 및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있는 1082개의 어린이 공원 중 300개소의 어린이공원을

선정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9년 현재 100개소가 개원할 예정이다(서울시, 2008). 이 공원의 특징으로는 어린이 공원에 지역커뮤니티 공간의 기능을 부여한 점 들 수 있다.

둘째, 친환경 놀이터 리모델링 : 한국토지공사 가 2006년부터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살고 싶은 지역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낡고 위험한 어린이공원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놀이 공간 및 주민의 쉼터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까지 전국의 9개 어린이공원을 진행한 바 있으며, 2009년 3개소를 계획 중에 있다(한국토지공사, 2009).

셋째, 문화가 있는 놀이터 : 서울문화재단이 2005년부터 놀이터를 지역 주민 연계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놀이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자치단체 또는 시공사와의 협조 하에 전국 2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거꾸로 놀이터”로 놀이시설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한국문화재단, 2009).

## 2. 어린이 도서관

도서관법 제3조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에 의하면 건물면적 264m<sup>2</sup> 이상, 열람좌석수 6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장서수 3000권, 연간중서 300권 이상을 보유한 도서관을 공립/사립 공공 도서관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경우 전체 열람석의 20% 이상을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을 덧붙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실시한 ‘국가 도서관 통계조사’에서 공공도서관의 요건을 충족한 도서관 가

운데 주 이용객을 어린이로 하고, 어린이를 위한 자료를 소장한 전국의 45개 도서관을 ‘어린이 도서관’으로 정의하였다.

어린이 도서관은 1923년에 개설된 총독부도서관의 부녀자 문고와 경성도서관의 아동열람실을 그 시초로 하고 있다. 1950년대 후반기부터 초등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열람실 설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1963년 도서관법이 통과된 이후 전국의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열람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1979년 5월 4일 ‘세계아동의 해’를 맞이하여 서울 사직동에 최초의 어린이 전용 공립 도서관인 ‘어린이 도서관’이 문을 열게 되었으나 2000년대까지 ‘어린이도서관’이라고 이름붙인 도서관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과 자료 면에서 빈약한 상태의 어린이 도서관이 주를 이루었다. 2002년 12월 비영리 단체인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 운동본부’가 벌인 북스타트 운동과 2003년 11월 순천의 ‘기적의 도서관 건립 운동’을 시작으로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전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게 되었다.

이들 가운데 2008년 이후 설립된 7개관을 제외한 38개관(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포함)을 살펴본다. 이 외에도 비록 도서관법에서 정의한 공공 어린이도서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다양한 자료와 환경을 갖추고 있는 전국 645개의 공공도서관 중 2000년 현재 436개관(전체 67.6%)에 설치된 어린이실(2008년 현재)과 크고 작은 문고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형태의 어린이 도서관은 현황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2009년 6월까지 파악된 지역별 어린이 도서관 현황은 <표 3>과 같다. 지역별 어린이 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어린이 도서관의 66.7%가 서울, 인천,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편차가 심하다.

<표 3> 지역별 어린이 도서관 현황(2009년 기준, 총 45개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8 (17.8%)	1 (2.2%)	1 (2.2%)	4 (8.9%)	1 (2.2)	1 (2,2)	1 (2.2%)	18 (40.0%)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	2 (4.4%)	3 (6.7%)	1 (2.2%)	-	2 (4.4%)	-	2 (4.4%)

출처 :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http://www.libsta.go.kr/index.do>), 문화체육관광부(2009).

국립 한 관, 사립 네 관, 교육청 한 관을 제외하고 설립주체는 지자체로 전체의 74%가 직영으로 나머지 24.4%가 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08년 현재 현황보고가 되어 있는 38개 도서관 장서수는 표 4와 같다. 대부분의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출판 자료인 장서를 대체로 1만에서 5만권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건물 규모, 도서 구입 예산, 역사 등과 장서 수는 비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어린이 도서관의 장서현황과 이용 대상자수, 이용자수를 비교해 볼 때, 1인당 이용할 수 있는 장서수가 매우 적음을 볼 수 있다. OECD 주요국가별 공공도서관 비교를 보면, 미국은 국민 1인당 장서수가 2.56권, 영국 2.25권, 프랑스 1.53권, 일본은 2.19권인데 반해 한국은 0.56권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문화관광부, 2002). 정부는 2013년까지 통합 대출 시스템 구축 목표로 2009년 현재 통합대출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다(대통령 소속 도서관 정보정책 위원회, 2008).

도서관에서 일하는 인적 자원의 통계는 <표 5>와 같다. 2008년 한국도서관 연감에 의하면 공공도서관 1관당 평균 직원수는 10.8명, 평균 사서 직원수는 4.5명에 불과하고, 사서 1인당 봉사대상 인구수는 17,961명으로 국제도서관연맹(IFLA)권장기준(인구 2,500명당 상근직원 1인)보다 7배나 많은 실정이다(한국 도서관 연감, 2008). 이를 토대로 어린이 도서관도 권장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일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 도서관 인력의 전문화 및 관련 제도의 선진화 방안으로 사서 자격 구분 요건을 개정하고, 사서 자격증 취득 필수 교과목을 지정하는 한편, 주제 전문 사서제도(어린이, 법학, 의학)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어린이 사서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린이 담당 사서 기초’등 10개 과정을 운영하고, ‘그림책 깊이 읽기’등 2개 과정을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였다(한상완, 2008).

<표 4> 장서수(총 38개관)

5000권 이상	10000권 이상	20000권 이상	30000권 이상	40000권 이상	50000권 이상	200000권 이상	300000권 이상	기타
1	3	11	9	4	5	1	1	3

출처 :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http://www.libsta.go.kr/index.do>), 문화체육관광부(2008).

<표 5> 인적자원(사서)(총 38개관)

1인	2-3인	4-5인	6인-10인	20인 이상
5	19	10	2	2

출처 :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http://www.libsta.go.kr/index.do>), 문화체육관광부(2008).

<표 6>에 따르면 38개 어린이 도서관이 소재하고 있는 시, 군, 구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원자료에 기록이 되지 않은 인원 제외-기타)는 대략 219만 명으로 1개 도서관이 평균 8만 여명의 어린이들을 봉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가 진행된 도서관 가운데는 10만 명 이상을 봉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도 23%나 된다.

은 곳이 대부분일 정도로 실태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다. 문화부에서 실시한 ‘2008년 국가도서관 통계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각 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도서관 전체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체 도서관의 1/3 가량이 보고되지 않았으며, 특히 도서관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원, 회원 회비 및 이용료, 후원금, 운영자 부담 등 수입 부분은 단 한곳도 보고되지 않았다.

어린이도서관의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은 주로 문고형 혹은 작은 도서관에서 두드러진다. 문고형 어린이도서관이라는 용어는 어린이를 주된

<표 6> 봉사 대상자 수(도서관이 소재한 시, 군, 구 어린이 수)(총 38개관)

기타	5천-1만	1만-2만	2만-3만	3만-4만	5만-6만	6만-7만	9만-10만	10만-20만	20만 이상
12	1 (3.8%)	4 (15.4%)	2 (7.7%)	2 (7.7%)	5 (19.2%)	4 (15.4%)	2 (7.7%)	5 (19.2%)	1 (3.8%)

출처 :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http://www.libsta.go.kr/index.do>), 문화체육관광부(2008).

연간 어린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원자료에 기록되지 않은 인원 제외-기타)는 15만 명이상이 52.9%를 차지하고 있다(표 7). 이는 1일 평균 650여명에서 많은 곳은 3200여명이 한 곳의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치로 앞서 언급한 도서관이 소재한 시, 군, 구의 어린이 수가 현저히 많아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된다.

어린이 도서관의 재정구조는 아직 보고되지 않

이용자로 하는 문고를 의미한다. 어린이도서관 및 문고형 어린이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최소 3개월 이상으로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단기적으로 마무리되는 프로그램과 특강형태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명예기자단과 같은 어린이들의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동아리 또는 연구회 등도 이루어진다. 기적의 도서관 및 문고 도서관

<표 7> 연간 이용자 수(총 38개관)

기타	5만 이하	5만 이상	10만 이상	15만 이상	20만 이상	30만 이상	40만 이상	50만 이상	90만 이상
4	8 (23.5%)	5 (14.7%)	3 (8.8%)	7 (20.6%)	4 (11.8%)	2 (5.9%)	2 (5.9%)	2 (5.9%)	1 (2.9%)

출처 :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http://www.libsta.go.kr/index.do>), 문화체육관광부(2008).

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크게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과 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외에도 각종 동아리 및 연구회 활동도 도서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림책 연구회, 독서치료 모임, 어린이 독서회 같은 것이다.

### 3. 청소년 기관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2조 1항)하는 반면,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3조 1항)하고 있다. 9세에서 17세까지가 아동과 청소년으로 연령이 중복된다. 청소년은 학교 안의 인구, 학교 밖 인구, 그리고 취업자로 다양한 구성을 이루는 바 이들의 요구 및 지역 사회의 지원 또한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 주요 기관으로 청소년 수련관 및 수련원, 청소년상담원, 청소년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그리고 청소년 자치 기관으로 동아리와 청소년 단체를 살펴본다.

1991년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장기적·종합적 육성정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 1, 2, 3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1993~2007)과 아동·청소년기본계

획(2009~2013)을 통해 청소년육성정책을 마련하여 왔다. 아동·청소년기본계획은 생애주기적 접근과 선예방-후치료적 접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김승권 외, 200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2009년 6월 현재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아동·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국회에 상정 중이다. 변경내용으로는 지방 아동·청소년 종합 운영기관의 설치와 공공시설의 아동·청소년 전용 프로그램 및 공간제공 의무를 골자로 한다 (<http://mw.korea.kr/gonews>)

2005년에 설립된 한국청소년진흥센터([www.kysc.or.kr](http://www.kysc.or.kr))는 청소년활동 종합 정보서비스([www.all4youth.net](http://www.all4youth.net)) 제공,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을 통한 수련 활성화,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한 전국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청소년 수련을 문화감성활동,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봉사·협력활동, 모험개척활동, 직업준비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 환경보존과 국제교류활동으로 영역을 규정하고 지원한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수련활동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3조5항)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 설치와 운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민간인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민간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수련시설의 종류는

<표 8> 청소년수련시설현황

구분	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교육청 시설
공공	552	139	189	43	22	11	6	142
민간	258	4	9	133	21	91	0	0
합계	810	143	198	176	43	102	6	142

주 : 국립청소년시설(2개) : 중앙수련원(충청남도 천안시)/평창수련원(강원도 평창군)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 아동·청소년백서

<표 9>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현황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설립수	16 (15)	7 (16)	1 (8)	3 (10)	1 (5)	2 (5)	2 (5)	5 (18)	32 (31)	4 (12)	6 (16)	15 (14)	4 (22)	12 (23)	21 (20)	2 (2)
설치 비율	64	44	13	30	20	40	28	28	103	33	100	107	18	52	105	100

주 : ( )는 기초자치단체 수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 아동·청소년백서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그리고 유스호스텔로 나눌 수 있다. 생활권수련시설은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과 교육청 시설이 있다. 자연권수련시설은 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 야영장이 이에 속한다.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은 <표 8>과 같다.

2008년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당 청소년 수는 13,159명이다(보건복지부, 2008). 이는 독일 1,720명, 영국 3,252명, 일본 4,892명에 비하면 아직 인프라 부족이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활동 공간 확충을 목표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청소년수련 시설의 지속적 건립, 확충, 운영지원을 한다. 2009년 청소년수련시설 예산은 320억원이다.

전문적 체험 활동을 목표로 새로운 형태의 수련시설이 모색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전라남도 고흥에 청소년우주체험센터(2010년 완공 예정), 전라북도 김제에 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2011년 완공 예정)와 경상북도 영덕에 청소년해양환경센터(2012년 완공 예정) 등을 꼽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9).

청소년 자원봉사는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을 받아 전국 16개 시·도에 ‘시·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충청북도를 제외하고는 한국청소년서울연맹 등의 청소년 기관에 위탁 운영 중이다. 2008년 9월말 현재 전국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수는 1,336,652명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한 수이며, 매년 증가 추세이다.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연수를 받은 자도 40만 명이 넘는다(보건복지부, 2008).

2005년 5월부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로 지칭되는 각 지역의 청소년 상담전화는 지역번호 없이 1388이며 가까운 지역 청소년지원센터로 연결된다. 2006년 CYS-Net 서비스 이용인원은 29,190명에서 2007년 56,899명으로 급증 추세이다. 서비스 내용은 상담 및 정서적 지원,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 사회적 보호, 여가 및 문화활동지원, 교육 및 학업지원, 의료지원, 자활지원, 그리고 법률자문 및 구제 지원 등의 빈도를 보인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년 3월 현재 서울시 지역 청소년지원센터 16개소를 비롯하여 전국에 143개소로 구성된다(<표 9> 참조).

청소년의 건전 성문화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성문화센터가 2007년도에 전국 16개 시·도 단위에 16개소가 신규로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기존 일부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던 참여형 성교육관 5개소도 계속 사업으로 운영되어 2008년도에는 신규시설 8개소를 합하여 29개소가 운영 되었다. 2009년 6개소가 신설 예정이다.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청각적 체험형태의 성교육으로 성지식과 관련 정보 제공,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청소년성문화동아리 지원 및 자원활동가 조직·관리의 역할을 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문화감성활동의 하나인 청소년어울마당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학업과 근무에서 오는 평소의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 서로 어울려 우정을 나누고 함께 놀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1990년도부터 시행되어 왔다. 2006년도부터 지역사회 문화공간을 연계하고 청소년 문화 존(zone)이 지정되어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09년 현재 전국 문화존은 150개로 편성되며 전체 예산은 30억 원이다. 이 중 8억 원은 16개 시도에 5천만원씩 지원된다. 학교가 쉬는 토요일에 전통문화체험, 역사탐방, 생태 나들이, 미술관 여행, 동아리 발표·공연·축제, 스포츠 등의 다양한 활동이 실시된다(서울은 <http://www.seoulyouth.net/> 참조). 아동·청소년기본계획에 의하면 2013년까지 주말 청소년문화존이 전국 300여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2009년 학교동아리와 청소년수련시설 동아리 가운데 자치단체 보조를 받는 동아리는 2,000개로 11억여 원의 지원을 받는다. 청소년동아리 활동은 2007년까지 민간단체보조였으나,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보조로 변경되었다. 국고보조율은 50%이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동아리 또한 청소년 인구의 12.8%가 경험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보건복지부에서 공모 지원되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은 2009년 프로그램 수는 102개, 예산은 20억여 원이다. 또래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세대 간 갈등해소와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소질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www.mw.go.kr](http://www.mw.go.kr))

청소년단체는 2009년 6월 현재 총350여개로 추

산된다. 이 중 회원 수 5천명 이상의 기준을 만족시키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www.ncyok.or.kr](http://www.ncyok.or.kr))에 가입한 단체가 73개이다. 협의회에 가입된 단체 소속 청소년 회원 수는 230여만 명으로 전체 청소년의 30% 가량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습량이 세계최장을 기록하는 가운데 교과교육 외의 성장에 유익한 경험을 목표로 다양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 II. 연구 쟁점

■ 그동안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연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연구는 공간 및 환경적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역시 어린이의 교육공간에 해당되므로 교육적 측면에서의 연구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유아에게 있어 실외놀이터는 실내놀이공간에서는 얻을 수 없는 장점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과밀화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외놀이시설을 옥내 놀이시설 또는 인근의 놀이시설로 대체 가능토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실외놀이터의 부재가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는 인근의 놀이시설로의 대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인근 놀이시설이 유아의 신체적 조건이나 발달수준에 적합지 않을 수 있다는 보고는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 III. 실제적, 정책적 이슈

■ 전국적 어린이 놀이터 리모델링 : 전국에 노

후화되고 안전이나 위생에 문제가 있는 놀이터의 리모델링은 시급한 실정이다. 어린이 공원의 경우 대도시 지역은 지자체의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하지만 지역예산이 부족한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에는 중앙정부의 복지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공동주택 단지, 유치원, 어린이집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거하여 자체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인근지역 놀이터 공동 사용보다는 자체 보유를 위한 지원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설치 기준의 법제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 및 관리 체계는 구축되었으나 이 법은 설치 이후의 기준이며, 놀이터가 어린이의 교육의 장이라는 본연의 기능 측면에서 시설의 설계단계부터 기준을 제시하도록 확장된 법이 필요하다. 즉, 어린이의 발달단계를 고려하고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설계 기준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아동학, 유아교육, 사회학, 행정, 법률, 시공, 디자인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보호자, 관리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 결과물로 제시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예로 상상어린이공원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 어린이 놀이터의 확장적 기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직 놀이 공간은 어린이들의 측면에서 계획되어지고 있을 뿐, 어린이와 같이 이용하는 보호자 또는 성인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 어린이 공원이나 놀이터를 중심으로 이웃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지고 있으므로(백혜선, 2002; 서지은·이정호, 2006), 어린이의 놀이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아울러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 어린이도서관에 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현황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현황자료를 토대로 각각 지역발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도서관 설립과 지원 사업을 펼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 도서관이 2001년을 기준으로 1관당 대략 11만명을 봉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미국이나 영국, 호주의 경우 1만-2만명을 봉사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있다(문화관광부, 2002). 정부에서는 도서관선진국을 향한 공공도서관 확충의 일환으로 2013년까지 900개관을 확충하여 봉사 대상 인구를 5만 명당 1개관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 아래 예산 350여억 원을 지원하여 2009년도에 56개관을 확충하고 있으며, 작은 도서관 조성에도 약 60여억 원을 지원하여 50개 관을 2009년에 개관할 예정이다(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 위원회, 2008). 그러나 도서관 건물과 장서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활발한 어린이도서관의 성격을 만들어야 한다.

■ 도서관의 수입과 결산 현황이 정확하게 보고되지 않고 있다. 통계 조사 자체가 법적 규제나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 관리자들은 도서관 재정 운영 상태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이나 기부금, 문화 센터 운영 등을 통한 수익 창출 현황을 살피는데 한계가 있다. 정확한 통계 조사를 통해 도서관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서관 이용 실태와 특성에 맞추어 국가나 지자체, 기업의 다각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도서관이 본래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어린이도서관의 전문 인력 육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도서관 사서 양성 체제는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의 계속 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어린이 전문 사서 양성을 위한 교과 과정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정혜

미·차미경, 2007), 도서관에서 이뤄지는 계속 교육 또한 어린이 전문 사서 양성을 위해서는 미흡한 상태이다(이연옥, 2005). 미국의 경우 문헌정보학 교육협회인 ALISE(Associ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에서는 어린이 전문 사서 양성을 위해 각 교육기관에서 제공해야 할 전문 영역을 구성하는 한편, 토론클럽을 두어 어린이 자료 연구 및 어린이 도서 서비스를 위한 토론 포럼을 열고 있다. 이를 통해 어린이 전문 사서들의 관심과 요구를 수용하여 이들에 맞는 출판물과 교육 프로그램 가입을 돕고 있다. 또한, 미국 도서관 협회에서는 어린이 사서와 어린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교육 강화를 위해 전략적 목표를 세워 이를 시행하고 있다(김진주, 2008). 따라서 어린이 전문 사서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및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문성을 지닌 어린이 사서가 이용자수에 맞게 배치되어야 한다.

■ 크고 작은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체계적이고 참여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2009년 한 해 동안 20여 억원을 들여 어린이 도서관 서비스 표준화 기반과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독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확산, 장서 확충, 이용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 전자 갤러리 구축을 통해 어린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며, 아동 정보 서비스 전문화를 통한 발전 기반 조성을 꾀할 예정이다(대통령 소속 도서관 정보정책 위원회, 2008). 정부에서 이처럼 다양한 정책이 계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수립과 실행과정에 어린이도서관 협회에 의견을 묻거나 협회 관계자가 참여한 바 없었다. 협회 또한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하는 정도이며, 민간도서관들은 이러한 정책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에서는 민간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작은 도서관의 현황과 분포 등에 대한 통계 자료와 우리나라 도서관 역사와 발전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 의미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구 자료들을 제작·배포하고 활용하고 있는 등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도서관 발전 계획 수립 과정에 민간이 참여하여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도서관 관련 정책 진행의 예산 지원 또한 국·공립도서관 및 국·공립 작은 도서관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의 정책과 의지가 민간 도서관의 설립·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전국의 어린이 도서관들은 대부분 민간 도서관으로 지역밀착형, 주민참여형 도서관이다.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관심과 참여 의지 없이는 운영되기 어렵다. 민간도서관은 도서관 종합발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도서관이 도서관 정책 수립에 반영되고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이와 소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도서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청소년 전용문화공간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야영장 및 도심권내 유스호스텔 등 공립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 및 증설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공립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시설 운영비·노후시설 리모델링 지원 등 운영지원과 민간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수련시설 건립, 수련활동 설비 구매, 수련시설 리모델링, 수련시설 운영 등을 위해 청소년육성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등 운영 지원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단체에 대한 세제지원 또한 요구된다.

■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의 집이 주로 저소득·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학교수업 후나 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습능력배양·체험활동·급식·건강관리·상담 등 종합 학습지원 및 복지·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청소년활동을 통한 역량개발의 핵심시설로서의 목적 또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소희(2008). 작은 도서관 운동의 마을 만들기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시민사회단체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승권·김미숙·강은정·김현철·이경상·조혜영·윤선화·김주환·임지영(2008). 아동청소년 정책 5개년 계획 수립.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 김 준(2006). 작은 도서관 개념에 대한 이해. 국립중앙도서관 정책과.
- 김준섭(2008). 공동주택 배치유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주(2008). 아동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 사서교육현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효정(1994). 정보사회에 있어서 어린이도서관의 위상.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6, 35-51.
- 문화관광부(2002). 미래형 지식정보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안)(2003-2011), 5.
- 백혜선(2002).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생활공간에 대한 주거자 의식조사 및 이용행태 분석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 12.
- 변혜령·최목화(2006). 서울지역 어린이집 실외놀이 환경 구성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 15(2), 209-225.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 아동·청소년백서.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년도 아동·청소년활동 정책.
- 산업자원부(200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 아동·청소년백서.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년도 아동·청소년활동 정책. 보건복지가족부.
- 산업자원부(200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 서울시 푸른도시국(2008). 시민고객 맞춤형 상상어린이공원 조성계획. 4.
- 서지은·이정호(2006). 환경시·환경음 인자가 어린이 놀이터의 행태지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8) 37-44.
- 여성가족부(2005). 표준보육과정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05-26.
- 이기숙·신동주·엄정애(2007) 서울시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 실외 어린이 놀이터 현황 및 실태분석. 교육과학연구, 37(2), 159-185.
- 이영주(2003). 어린이도서관의 현황과 발전방안.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숙재(2004). 유아를 위한 놀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이현옥(2005). 어린이사서의 역할과 전문성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3), 233-256.
- 정년기(2006). 대전광역시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토양 중 개생회충 오염실태.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지, 30(1) 69-76.
- 정혜미·차미경(2007). 공공도서관 어린이사서를 위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8(2), 161-181.
- 조현성·정갑영·이용훈·하현주(200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천재탁(2008). 국내 북스타트 운동의 현황 분석과 활성화 방안 -공공 도서관을 중심으로-. 대구 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목화·변혜령(2006). 영유아 교육기관의 실외놀이 터 실태와 만족도에 대한 비교연구 -대전광역시 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 15(4), 527-539.

- 최홍일(1994). 우리나라 도시의 놀이공간 실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통계청(2008). 2008 청소년통계.
- 한상완(2008). 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2009-2013).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홍미숙(2008).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서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홍지숙(2007).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놀이터의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 도서관 협회(2008). 한국 도서관 연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 미래세대 리포트 1호- 아동·청소년 투자에 관한 생애주기적 접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http : //www.all4youth.net](http://www.all4youth.net) 청소년종합정보서비스.
- [http : //mw.korea.kr/gonews](http://mw.korea.kr/gonews) 보건복지가족부.
- [http : //www.kysc.or.kr](http://www.kysc.or.kr)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http : //www.libsta.go.kr/index.do](http://www.libsta.go.kr/index.do)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 2008 전국 도서관 통계조사, 2009 전국 도서관 통계.
- [http : //www.lplus.or.kr](http://www.lplus.or.kr) 한국토지주택공사.
- [http : //www.ncyok.or.kr](http://www.ncyok.or.kr)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http : //www.mw.go.kr](http://www.mw.go.kr) 보건복지가족부
- [http : //www.seoulyouth.net](http://www.seoulyouth.net)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존.
- [http : //www.sfac.or.kr](http://www.sfac.or.kr) 서울문화재단.

2009년 8월 15일 투고, 2009년 10월 24일 수정  
2009년 11월 11일 채택